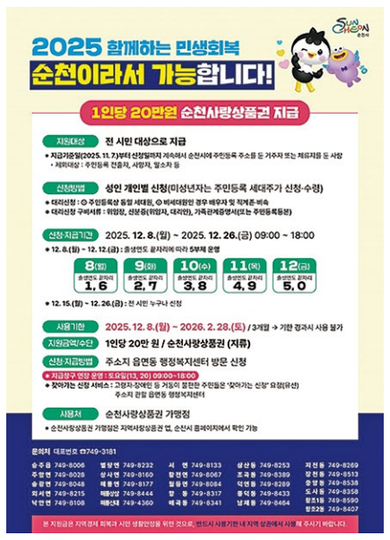
순천시, 시민 1인당 민생회복지원금 20만원 지급



오는 8일부터 26일까지 3주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서 신청 접수

내년 2월까지 순천사랑상품권 가맹점 13,840개소서 사용 가능

순천시는 경기 침체와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순천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번 지원을 통해 지역 소비를 활성화하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실질적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민생회복지원금 580억 원은 부채 없이 100% 순천시 자체 재원으로 확보됐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지원금은 지급기준일인 2025년 11월 7일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 순천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시민에게 1인당 20만 원이 지급된다. 순천사랑상품권(지류, 1만 원권)으로 지급되며, 상품권은 2025년 12월 8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 3개월간 사용 가능하다.

사용처는 순천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전통시장·동네마트·식당·카페·미용실 등 13,840개소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읍·면 지역 하나로마트도 포함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8일(월)부터 26일(금)까지 총 3주간이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8일부터 12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별 5부제로 운영하고, 15일부터는 요일 구분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직장인 등 시민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13일과 20일 토요일에도 지급창구를 운영하며,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는 마을회관·주택 등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신청과 지급을 돕는 맞춤형 주민편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이번 지원금이 침체된 지역 소비를 활성화하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매출 회복에 직접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시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완화해 지역경제 전반의 선순환 구조를 강화하는 효과도 클 것으로 전망된다.

순천/정성인 기자

고흥군민들이 다양한 꽃을 식재하며, 한평정원 조성에 힘을 보태고 있다.

불법투기 지역·자투리 땅이 '한평정원'으로

고흥군, 다년생 초화 식재…생활환경의 질 향상 기여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쓰레기 불법투기로 방치된 유휴부지와 자투리 땅에 생활환경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한평정원 조성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평정원 조성사업'은 지난 2015년부터 시작해 현재 16개 읍·면에 312개의 정원을 조성해 관리하고 있다.

이 사업은 단순한 경관개선을 넘어 주민이 직접 설계하고 가꾸는 참여정원으로 운영되며, 지역 특색을 담아 의미를 더하고 있다.

특히 수국, 국화, 황금사철 등 다년생 초화를 식재하고, 버려진 자원을 활용해 정원을 꾸미는 과정을 스토리텔링 형태로 담아내 지역주민의 공감을 이끌고 있다.

군은 매년 한평정원 조성 평가를 통해 우수 읍·면을 선정해 시상하고, 불법 투기지역의 경관개선과 쓰레기 감소, 주민 참여 등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

한편, 군은 한평정원 사업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내년에는 신규 정원의 조성 과정과 계절별 변화를 기록해 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고흥/박도일 기자

구례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2025 성과 공유대회' 개최

올 한해 복지 활동 돌아보며 민·관 협력 강화의 장 다짐

전남 구례군이 지난 1일 백두대간생태교육장에서 2025년 구례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성과공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과공유대회는 2025년 한 해 동안 협의체가 추진한 복지 활동을 되돌아보고, 지역사회 복지 향상을 위한 민·관 협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협의체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 위원에 대한 군수 표창, 군, 읍·면 협의체 우수사례 발표가 진행됐다.

구례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올해 「행복체감 100℃ 복지는 달린다 시즌3」사업을 추진하며 찾아가는 복지 지원 체계를 강화했다.

또한 제26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며 지역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읍·면 협의체는 주민 밀착형 복지 활동을 추진하며 지역의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앞장섰다. 문척면은 장애인 독거노인 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광의면은 저장강박가구 지원사업을, 마산면은 한부모 가정 공부방 지원사업, 용방면은 산수유 고추장 만들기 사업, 토지면은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주거환경 개선사업, 구례읍은 지역 민간자원 발굴 및 연계 활동 강화, 산동면은 '행복드림 돌봄공동체'공모사업 성과를 각각 달성했다.

임재신 협의체 민간위원장은 "협의체는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살피는 든든한 울타리 역할을 해왔다"며 "앞으로도 위원들과 함께 더 따뜻한 복지 공동체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지역 곳곳에서 묵묵히 활동해주시는 협의체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군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실현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구례/한정호 기자

카메라 뉴스

함평군 학교면 새마을부녀회, 사랑의 김장나눔 실시

전남 함평군(군수 이상익)이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겨울철 김장김치를 전달하며 지역 복지 안전망을 강화하고 있다. 함평군은 1일 "새마을부녀회(회장 김영란)가 지난달 28일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를 열고 지역 취약계층 100가구에 정성이 담긴 김장김치와 국화빵 나눔 꾸러미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새마을부녀회는 겨울철 식료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이웃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매년 김장 나눔을 이어오고 있으며, 올해 행사에는 회원 35명이 참여해 한마음으로 봉사에 동참했다. 새마을부녀회는 이른 아침부터 학교면 경로식당에 모여 배추 절이기, 양념 만들기, 버무리기, 포장까지 전 과정을 직접 진행했다. 특히 김장김치와 함께 회원들이 구운 국화빵을 함께 담아 나눔의 따뜻함을 더했다. 함평/전광춘 기자

장흥군, '사회복지사 어울림 한마당' 성황리에 개최

장흥군이 지난달 28일 장흥군민회관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사회복지사협회 어울림 한마당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장흥군 사회복지사들은 한자리에 모여 복지의 가치를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장흥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노영환·위수미)와 장흥군 사회복지사협회가 공동 주관한 이번 행사는 150여 명의 사회복지 시설·기관 관계자,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1부 행사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의 개회사와 장흥군수 격려사,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으며, 2부 행사에서는 민관협력 역량강화 교육과 어울림 레크레이션 행사를 통해 사회복지사 간의 화합과 재충전의 시간을 가졌다. /장흥군 제공

나주시, 2025 공직자 역량 강화 워크숍 개최

전라남도 나주시가 급변하는 행정 환경 속에서 시민 중심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6급과 신규 공무원을 대상으로 리더십과 기본 소양을 강화하는 직급별 맞춤형 교육을 추진했다.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지난 11월 27일부터 28일까지 1박 2일간 나주시 중흥골드스파&리조트에서 '2025 공직자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조직 내 중추 역할을 하는 6급 공무원과 공직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신규 공무원의 직무 역량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나주/이명열 기자

새로운 에너지 세상

자연이 만든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
세상은 더 밝아지고
우리는 더 따뜻한 미래를 꿈꾸게 됩니다.

태양의 힘으로 움직이고,
바람이 만든 에너지로 밝게 빛나는 세상

한국전력이 깨끗한 에너지로
새로운 에너지 세상을 열어가겠습니다

한국전력 KEPCO